時の旅

時々、本当にまれに

机の上にうつせになりたい時があるだろう。

わけも無く気力がなくなる時

誰とも会いたくない時

ただ目をじっとつむっておきたい時

机の上に両をえて重ね

その上に熱いおでこをのせ

静かに呼吸を整えていたら

友だちがしくぐ声が

遠ざかってゆき

真っ暗なはだんだん深まるだろう。

私をこのままに放っておいて。

眠りにつこ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。

ある夢を見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

私だけのタイムマシンに乗り

どこか遠い場所に少しの間

行って来ようとしているだけだ。

そこで私の星を見つけたら

その星がキラッと明るく光りくように

私も再びぱちりと目を覚ますだろう。

**５年生以上―課題文⑤**

**시간 여행**

가끔, 아주 가끔

책상 위에 엎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.

아무런 까닭 없이 맥이 풀릴 때

아무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을 때

그냥 눈을 꼬옥 감아 버리고만 싶을 때

책상 위에 두 팔을 가지런히 포개고

그 위에 뜨거운 이마를 얹고

가만가만 숨을 고르노라면

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

아득하게 멀어져 가고

깜깜한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지.

날 그냥 내버려 두렴.

잠들려는 것이 아니야.

어떤 꿈을 꾸려는 것이 아니야

나만의 타임 머신을 타고

어디 머나먼 곳을 잠깐 동안

다녀오려는 것뿐이야.

그곳에서 나의 별을 찾으면

그 별이 문득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

나도 다시 반짝 깨어날 거야.